

##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다차원 정체성 척도 타당화\*

이 소 정<sup>1)</sup>

김 은 하<sup>†</sup>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Mohr와 Kendra(2011)가 개발한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LGBIS)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한 LGBIS를 201명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한 문항을 삭제하고 8개 하위요인(26문항)으로 한국판 LGBIS를 구성하였다. 8개 하위요인은 원칙도와 동일하게 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신,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 정체성 우월, 정체성 긍정, 정체성 중심이었다. 또한, 한국판 LGBIS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은닉 동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10명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8요인 모형(26문항)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LGBIS의 타당도 검증에 위해, 각 하위요인과 정체성 및 심리적 기능을 측정하는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LGBIS는 총 26문항,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국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게 사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다차원 정체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타당화, 요인분석, 신뢰도

\* 본 논문은 이소정(2020)의 석사학위논문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다차원 정체성 척도 타당화’를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1)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율곡관 508호, Tel: 031-219-2747, E-mail: eunkim@ajou.ac.kr

과거 정신질환으로 여겨지던 동성애는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범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DSM-III)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또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4)와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성적지향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 전환 치료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2019년 OECD(2019)가 실시한 국가별 태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척도(1=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음, 10=늘 정당함)에서 3점에 불과했다. 이는 6~7점대로 확인된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일본(5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OECD, 2019). 또한, 2010~2014년에 진행한 6차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2010)에서, 한국은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약 8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하게, 국내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김혜민, 유금란, 2020;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정애경, 윤은희, 2020), 전반적으로 동성애자가 겪는 차별과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평가적인 시선과 거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괴롭힘, 커밍아웃

과 관련된 스트레스, 교육, 고용, 의료와 같은 사회 제도에서 배제당함 등 다양한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 Meyer, 2003)를 경험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심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하, 정보현, 김하영, 2020; 김진이, 2017). 가령, King 등(2008)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우울, 불안 및 알코올 혹은 다른 물질 남용을 겪을 가능성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Yi, Lee, Park, Choi와 Kim(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 비해 5배~7배 정도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성소수자들이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과거 동성애가 정신질환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악용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증명되었다(우사라, 유성경, 2017; Baams, Grossman, & Russell, 2015). 이를 반영하듯,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결과(Social Needs Assessment Survey)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하였고, 87%는 증오와 혐오 발언을 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40% 정도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영정 등, 2014).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은 내면화된 성적 낙인(internalized sexual stigma)으로 인해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Herek, Gillis, & Cogan, 2009; McCarn & Fassinger, 1996).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성소수자 개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편견, 부정적 태도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향으로, 내면화된 동성애 공포(internalized homophobia), 내면화된 이성애주의(internalized heterosexism),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internalized homonegativity)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면화된 성적 낙인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예. 자기혐오, 수치심, 죄의식, 우울, 불안, 자해와 자살)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ugelli & Grossman, 2001; Feinstein, Goldfried, & Davila, 2012; Lingardi, Baiocco, & Nardelli, 2012; Newcomb & Mustanski, 2010).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더 살펴보기 전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먼저, 성적지향은 한 개인이 정서적 혹은 성적으로 어떤 성별에 끌리는지를 의미하며,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로 구분된다(Moleiro & Pinto, 2015). 이에 반해, 성별 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뜻하며,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개인은 시스젠더 범주로 정체화할 수 있는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 개인은 트랜스섹슈얼 혹은 다른 트랜스젠더 범주로 정체화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인 경우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나영정, 정현희, 2015). 본 연구에서는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애자인 레즈비언과 게이 및 양성애자 집단(Lesbian, Gay, Bisexual: LGB)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LGB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는 정체성 발달(identity development)로, 그 이

유는 LGB는 사회적 편견, 차별 및 내면화된 성적 낙인으로 인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독특한 발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박준호, Lawrence, & Deborah, 2014).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LGB의 정체성 발달은 일정한 단계(stage)를 거쳐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동성애 정체성 발달 단계 모델을 제안한 연구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Cass(1979)는 동성애 정체성 발달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인 성정체성 혼란에서 개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란감과 당혹감을 느낀다. 2단계인 성정체성 비교에서는 자신과 이성애자인 또래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3단계인 성정체성 인내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다른 동성애자 친구들이나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하지만,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며 '이중' 생활을 한다. 4단계인 성정체성 수용에서는 동성애 하위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형성하고, 동성애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점점 더 발전시킨다. 5단계인 성정체성 자부심에서는 동성애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성애자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6단계인 성정체성 통합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분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지지적인 이성애자들과 상호작용하고 동성애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한 정체성으로 통합한다.

Cass(1979)의 동성애 정체성 발달모델은 관련 문헌에서 널리 인용되어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는 가정하에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Goodrich &

Brammer, 2021). 특히,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LGB의 정체성 발달은 반드시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단계를 통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박준호 등, 2014). 또한 최근에는 성정체성을 보다 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 예시로, Diamond(2007)의 역동적 시스템 이론(dynamical systems theory)을 꼽을 수 있다. Diamond(2007)에 따르면, 성정체성 발달은 개인, 문화적 맥락, 시간에 따라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때로는 급격한 변화와 순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상호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 theory)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성정체성이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는 단일하지 않으며, 젠더, 인종, 사회적 계급, 성적지향 등 다양한 측면이 상호교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Ashmore, Deaux, & McLaughlin-Volpe, 2004). 가령, 미국 사회에서 흑인 LGB의 정체성은 인종 및 성별 차이로 인해 백인 LGB의 정체성과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Meyer, 2010). 따라서, LGB의 성정체성과 정신건강,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 차원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성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성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먼저, 성정체성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한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Cass(1984)의 동성애 정체성 설문지(Homosexual Identity Questionnaire; HIQ)가 있다. 이 척도는 총 210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념(Commitment), 정체

성 평가(Identity evaluation), 집단 정체성(Group identification), 성적지향 활동(Sexual orientation activity) 등 정체성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는 16개의 차원에서 중요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들을 측정한다. 모든 문항은 Cass(1979)의 동성애 정체성 발달 6단계 중 한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HIQ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이 몇 단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유사하게, Brady와 Busse(1994)는 Cass의 6단계에 근거하여 게이 정체성 설문지(Gay Identity Questionnaire; GIQ)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단계별로 7문항씩 42문항과 타당도 확인을 위한 3문항을 포함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래에는 LGB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념인 내면화된 성적 낙인,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및 성적지향 은닉을 측정하는 척도들도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내면화된 성적 낙인이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IHP; Martin & Dean, 1987), 내면화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 척도(Internalized Homonegativity Inventory)(IINHNI; Mayfield, 2001), 레즈비언과 게이를 대상으로 한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The measure of internalized sexual stigma for Lesbians and Gay Men)(MISS-LG; Lingiardi, Baiocco & Nardelli, 2012) 등이 있다. 이 척도들은 LGB가 얼마나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성적지향을 부인하고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측정한다(이호림, 2015). 이에 반해, 성적지향 은닉 척도(The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Scale)(SOC; Jackson & Mohr, 2016)도 개발되었는데, 이 척도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얼마나 은닉하는

지를 측정한다. 유사하게, 드러내기 척도 (Outness Inventory)(OI; Mohr & Fassinger, 2000)도 자신의 성적지향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밍아웃했는지를 측정한다.

이러한 척도들은 LGB가 성적체성으로 인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크게 세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기존의 척도들은 게이와 레즈비언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양성애자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장지윤, 안현의, 2018; Balsam & Mohr, 2007). 이러한 이유로 성적체성 연구에서조차도 양성애자들은 비가시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박은실, 2010). 둘째, 성적체성의 다차원적 요소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집단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가, 외집단 사람들이 해당 집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Ashmore et al, 2004). 성적체성 또한 비슷하게,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 성적체성이 전반적인 자기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도, 동성애 혹은 양성애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 동성애 커뮤니티에 대한 정서적 관여도 등 다양한 차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적체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척도들은 대부분 LGB 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Mohr와 Fassinger(2000)는 그 이전에 개발된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LGB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 척도(Lesbian and Gay Identity Scale; LGIS)를 개발하였지만, 이 척도 역시 기존의 척도들과 유사하게 게이와 레즈비언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생각 및 감정만을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인 성적체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LGIS는 부정적인 정체성, 수용 걱정, 은닉 동기, 고된 과정,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정체성 불확실이라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LGB 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LGB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으로 가장 주목받은 개념은 ‘정체성 중심(identity centrality)’과 ‘정체성 긍정(identity affirmation)’이다. ‘정체성 중심’은 성적체성이 개인의 전반적인 정체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LGB의 심리적 적응이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더라도 소수자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이나 웰빙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yer, 2003). 이에 반해, ‘정체성 긍정’은 LGB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LGB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iggle, Whitman, Olson, Rostosky, & Strong,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결여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개념으로, 성적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분리시켜 측정

할 필요가 있다(Cramer, Burks, Golom, Stroud, & Graham, 2016).

이처럼, 양성애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정체체성의 긍정적인 요소를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Mohr와 Kendra (2011)는 Mohr와 Fassinger(2000)의 LGIS에 양성애자를 포함시킨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정체성 척도(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LGBI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모든 문항에 양성애(bisexual, bisexuality)라는 용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양성애자를 대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Mohr와 Fassinger (2000)은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이 서로 상이한 경험을 하지만, 동성애적 관계 및 경험을 하고, 소수자로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LGBIS의 또 다른 장점은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시켜 부정적 정체성(‘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신’,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과 긍정적 정체성(‘정체성 우월’, ‘정체성 긍정’, ‘정체성 중심’)을 모두 측정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LGBIS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수용 걱정(acceptance concerns)’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종종 사람들이 나의 성적지향을 중심으로 나를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둘째, ‘은닉 동기(concealment motivation)’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동성연애관계를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고 싶다’). 셋째, ‘정체성 불

확신(identity uncertainty)’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넷째,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internalized homonegativity)’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성애를 더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가능하면 나는 이성애자가 되고 싶다’). 다섯째, ‘고된 과정(difficult process)’은 자신의 성적지향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섯째, ‘정체성 우월(identity superiority)’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정체성 긍정(identity affirmation)’은 자신의 성적지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중심(identity centrality)’은 성적지향 정체성이 자신의 전반적인 정체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한다(예. ‘내 정체성에서 나의 성적지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LGBIS가 개발된 후 몇 명 연구자들이 LGBIS의 요인구조를 재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다. 예를 들어, de Oliveira, Lopes, Costa와 Nogueira(2012)는 포르투갈인 LGB를 대상으로 LGBI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원칙도와 달리 7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7요인 모형은 ‘정체성 불만족’(LGBIS의 여러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들로 구성), ‘정

체성 불확실', '은닉 동기', '고된 과정', '정체성 중심', '낙인 예민성'(LGBIS의 은닉 동기에 포함된 일부 문항들로 구성), '정체성 우월'이라는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미국인 LGB를 대상으로 한 연구(Cramer et al., 2016)에서는 6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개의 하위요인인 '수용 걱정', '은닉 동기', '고된 과정',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은 부정적 정체성이라는 상위요인으로 묶이고, 나머지 2개의 하위요인인 '정체성 불확실'과 '정체성 우월'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 LGBIS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박도담, 유성경, 2019; 이솔희, 2019; 장지윤, 안현의, 2018), 일부 문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요인구조나 타당도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LGBIS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한국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예를 들어, 박도담 등(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성적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LGBIS를 사용하였는데, LGBIS의 8개의 하위요인 중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을 제외한 6개의 하위요인만이 사용되었다. 또한 장지윤 등(2018)도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LGBIS의 6개 하위요인만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직까지 많은 언어로 번안 및 타당화된 것은 아니지만, LGBIS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 하나이다. 이 척도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양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갖추었으며 LGB 정체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

항이 많지 않아 2~3분 이내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어, 정체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LGB 정체성 연구가 부족하고 학문적·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이미 검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LGBIS를 국내에 타당화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LGBIS 척도를 국내 LGB에게 실시하여 타당화하였다. 먼저, 번역-역번역을 통해 LGBIS를 한국어로 번안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판 LGBI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원칙도 개발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한국판 LGBIS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LGBIS와 정체성 관련 요인(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다집단 민족정체성, 집단자존감, 드러내기, 정체성 수용기간)을 측정하는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LGBIS와 심리적 기능 관련 요인(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삶의 만족감,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판 LGBIS는 원칙도와 동일하게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한국판 LGBIS의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과 가장 큰 상관을, 내집단 지향은 '정체성 긍정'과, 외집단 지향은 '정체성 우월'과, 공적 집단자존감은 '수용 걱정' 및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과, 정체적 집단자존감은

‘정체성 중심’과, 드러내기는 ‘은닉 동기’ 및 ‘정체성 긍정’과 그리고 정체성 수용 기간은 ‘정체성 불확신’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셋째, ‘수용 걱정’,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 ‘고된 과정’은 부정적 정서 및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정체성 긍정’은 정적 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LGBIS가 한국에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입증된다면, LGB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와 상담 개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및 절차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18세 이상의 LGB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본 1). 본 연구는 성별 정체성이 아닌 성적지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성소수자 단체에서 진행되는 스트레스 관련 워크숍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웹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받은 후,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5분 정도였고,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207명이었으며, 이 중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지 않은 4명과 트랜스젠더 2명을 제외한 20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크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Hogarty, Hines, Kromrey, Ferron, & Mumford, 2005), 200명~250명 이상이면 적당하다는 근거(Comrey & Lee, 1992)를 참고하여 참여자 수를 결정하였다. 표본 1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68명(33.9%), 여성이 133명(66.1%)이었고, 성적지향은 레즈비언 75명(37.3%), 게이 52명(25.9%), 바이섹슈얼/양성애자 72명(35.8%), 기타 2명(1.0%)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6.55세( $SD=5.22$ )로, 이 중 10대 9명(4.5%), 20대 125명(62.2%), 30대 67명(33.3%)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2명(1.0%), 고등학교 졸업 19명(9.5%), 전문대학 재학 6명(3.0%), 전문대학 졸업 29명(14.4%), 4년제 대학 재학 73명(36.3%), 4년제 대학 졸업 51명(25.4%), 대학원 재학 7명(3.5%), 대학원 졸업 이상 14명(7.0%)이었고, 종교는 불교 15명(7.5%), 개신교 27명(13.4%), 천주교 22명(10.9%), 무교 137명(68.2%)이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18세 이상의 LGB를 대상(트랜스젠더 제외)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본 2). 표본 2 참여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모집되었는데, 특히,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대학 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에 메일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웹 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안내받았고,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고, 설문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212명이었고, 이 중 이성애자 1명과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1명을 제외한 21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2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188명(89.5%), 남성 22명(10.5%)이었고, 성적지향은 레즈비언 106명(50.5%), 게이 17명(8.1%), 바이섹슈얼/양성애자 80명(38.1%), 기타 7명(3.3%)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5.78세( $SD=5.38$ )로, 그 중 10대가 30명(14.3%), 20대가 116명(55.2%), 30대가 64명(30.5%)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5명(2.40%), 고등학교 졸업 19명(9.0%), 전문대학 재학 5명(2.4%), 전문대학 졸업 24명(11.4%), 4년제 대학 재학 82명(39.0%), 4년제 대학 졸업 49명(23.3%), 대학원 재학 11명(5.2%), 대학원 졸업 이상 15명(7.1%)이었고, 종교는 불교 18명(8.6%), 개신교 24명(11.4%), 천주교 26명(7.6%), 무교 137명(72.4%)이었다.

#### 측정 도구

#####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다차원 정체성 척도(K-LGBIS)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다차원 정체성 척도(LGBIS; Mohr & Kendra, 2011)는 총 27개의 문항, 8개의 하위요인(‘수용 걱정’, ‘은닉 동기’, ‘정체성 불확신’,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 ‘정체성 우월’, ‘정체성 긍정’, ‘정체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Mohr 등(2011)의 연구에서 LGBI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5~.91 그리고 6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LGBIS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Mohr 등(2011)은 원척도

개발 논문에 누구든지 따로 승인을 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척도를 사용해도 된다는 글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에게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번역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 1인과 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 2인이 독립적으로 전체 문항과 지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비교·협의를 통해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자인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이 번역된 문항과 지시문을 영어로 역번역한 후, 또 다른 이중 언어자인 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석사과정 학생 2인 그리고 LGB 2인에게 원문항과 역번역된 문항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고, 비교·협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참여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를 측정하기 위해 Martin과 Dean(1987)이 개발하고 이호림(2015)이 한국어로 번역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Internalized Homophobia Scale; I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9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지향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박의주(2012)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 다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

참여자의 내집단 지향과 외집단 지향을 측정하기 위해 Phinney(1992)가 개발하고 본 연구

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다집단 민족 정체성 척도(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민족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문항의 주어가 대부분 ‘민족 집단(ethnic group)’으로 되어 있는데, Mohr 등(2011)이 LGB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족 집단’을 ‘성소수자’ 혹은 ‘성적지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 수정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 2요인(‘내집단 지향’, ‘외집단 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집단 지향’은 LGB 개인이 LGB 집단과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에 ‘외집단 지향’은 LGB 개인이 얼마나 이성애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Phinney(1992)의 연구에서 내집단 지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1(고등학생 대상), .90(대학생 대상)이었고 외집단 지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1(고등학생 대상), .74(대학생 대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지향 .89, 외집단 지향 .75로 나타났다.

#### 집단자존감 척도

참여자의 LGB 집단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Luhtanen과 Crocker(1992)가 개발하고 김혜숙(1993)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한 집단자존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 C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 4개의 하위요인(멤버십 집단자존감, 사적 집단자존감, 공적 집단자존감, 정체적 집단자존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공적 집단자존감’과 ‘정체적 집단자존감’

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공적 집단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LGB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정체적 집단자존감’은 LGB로 사는 것이 개인의 자기 개념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혜숙(199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공적 집단자존감 .68~.71, 정체적 집단자존감 .60~.6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공적 집단자존감 .63, 정체적 집단자존감 .79로 나타났다.

#### 드러내기 척도

참여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밍아웃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Mohr와 Fassinger(2000)가 개발하고 임민경(2014)이 한국어로 번안한 드러내기 척도(Outness Inventory; O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3개의 하위요인(가족, 사회, 종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커밍아웃 했는지에 대해 7점 척도(1=‘이 사람(들)은 내 성적지향에 대해 전혀 모른다’, 7점=‘이 사람(들)은 내 성적지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드러내기를 의미한다. Mohr 등(2000)의 연구에서 ‘사회’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68로 나타났다.

### 정체성 수용기간

참여자가 자신의 LGB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Mohr 등(2011)이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여자로 하여금 세계의 문항(처음 동성에게 끌린다는 것을 인지한 나이,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이, 성적지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나이)에 응답하게 한 후, 현재 연령에서 각 나이를 뺀 다음, 평균을 산출하였다. Mohr 등(2011)의 연구에서 이 방법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

참여자가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 두 개의 하위요인(정적 정서, 부적 정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정서 혹은 부정 정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정적정서 .86, 부적정서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정적정서 .89, 부적정서 .86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

참여자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한국어

로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orean Version of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K-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 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영진(2012)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집단별로 .84~.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참여자가 평소 얼마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전점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 및 타당화 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0='거의 드물게', 3='대부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전점구와 이민규(1992)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먼저, LGBI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대우도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8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카이스퀘어 값( $\chi^2$ ), RMSEA, SRMR과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를 확인하였다. 홍세희(2000) 연구에 따르면, CFI와 TLI는 .9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 .08 미만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을 넘으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 SRMR은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는데, .08 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배병렬, 2011). 셋째, 한국판 LGBI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다집단 민족정체성, 집단자존감, 드러내기, 정체성 수용기간 등 정체성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LGBIS의 준거 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삶의 만족감, 우울 등 심리적 기능 관련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 (Kaiser-Meyer-Olkin) 측도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측도는 .758, 구형성 지표는  $\chi^2=2815.267(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Mardia's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축요인법과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유치 >1인 요인은 8개로 나타났고, 스크리 도표는 아홉 번째 요인부터 평평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평행분석 결과도 8요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요인 수를 8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8개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고, 요인 부하량 절대값 .40이하, 둘 이상의 요인에서 .30이상, 그리고 요인부하량 차이가 .10미만인 문항인 4번 문항('나는 누가 나의 동성연애 관계를 알고 있는지 신중하게 알린다')을 제거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출된 8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량은 61.283%로, 1요인이 18.52%로 가장 많았고, 2요인이 13.97%, 3요인이 7.84%, 4요인이 6.21%, 5요인이 5.26%, 6요인이 3.59%, 7요인이 3.89%, 8요인이 2.51%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LGBIS의 8개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과 원척도의 해당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동일하여 각각의 하위요인을 원척도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모두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 Bernstein, 1994).

### 신뢰도 분석

한국판 LGBIS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7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수용 걱정' .73, '은닉 동기' .57, '정체성 불확신' .86,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86, '고된 과정' .84, '정체성 우월' .79, '정체성 긍정' .86, '정체성 중심' .8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닉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

표 1. 한국판 LGBIS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2	3	4	5	6	7	8
<b>요인 1: 정체성 긍정(3문항)</b>								
26.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90	-.01	-.05	-.07	.04	.06	-.07	.05
13.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71	.14	.01	-.04	-.03	.00	.01	.08
6.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라서 기쁘다.	-.54	.10	-.03	-.08	.09	-.03	-.05	.26
<b>요인 2: 정체성 중심(5문항)</b>								
25. 동성애자/양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4	.92	-.01	.10	.05	-.04	.06	-.05
24.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6	.87	.02	.03	.07	.02	.06	-.08
15. 내 정체성에서 나의 성적지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01	.66	-.08	-.08	-.08	.13	.15	.10
11.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어서 나의 성적지향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역문항).	.17	.53	-.01	-.05	-.08	.01	-.15	.01
21.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사람들은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06	.53	.08	-.19	.01	.04	-.18	.04
<b>요인 3: 정체성 불확신(4문항)</b>								
3. 나는 나의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01	-.05	.86	.05	.12	.01	-.03	.00
8. 내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이 바뀐다.	-.10	-.05	.82	-.02	-.02	.06	-.11	.06
22. 나는 나의 성적지향을 정의하려고 할 때 매우 혼란스럽다.	.05	.03	.78	-.03	-.13	-.01	.07	-.01
14. 나는 내가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04	.08	.66	.02	-.05	-.03	.08	-.05
<b>요인 4: 정체성 우월(3문항)</b>								
18.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양성애자보다 지루한 삶을 산다.	-.10	-.07	.02	-.81	-.06	.02	.07	-.01
10.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05	.02	-.02	-.78	.08	.03	.07	.05
7. 나는 이성애자들을 알잡아본다.	.11	.15	-.03	-.64	-.03	-.05	-.18	.01
<b>요인 5: 고된 과정(3문항)</b>								
17.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0	-.04	.03	.06	-.94	-.01	-.03	.14
12.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괴로웠다.	.01	-.02	-.03	-.08	-.81	.09	.08	-.04
23. 나는 처음부터 나의 성적정체성이 편안하게 느껴졌다(역문항).	.14	.06	.10	.03	-.61	-.06	-.04	-.19
<b>요인 6: 수용 걱정(3문항)</b>								
1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있어 나의 성적지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10	.18	.07	-.03	-.04	.74	-.03	.00
9. 나는 사람들이 내 성적지향을 잣대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06	-.05	.06	-.06	-.04	.67	.06	-.17
5. 나는 종종 사람들이 나의 성적지향을 바탕으로 나를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07	.03	-.05	.03	-.01	.60	-.14	-.05
<b>요인 7: 은닉 동기(2문항)</b>								
19. 나의 성적지향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다.	-.02	.07	-.07	.08	-.05	-.05	.69	-.05
1. 나는 나의 동성연애관계를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고 싶다.	.09	-.10	.10	-.13	.05	-.05	.55	-.13
<b>요인 8: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3문항)</b>								
20. 내가 이성애자였으면 좋겠다.	.06	.00	.05	.08	.00	.10	.11	-.86
2. 가능하다면, 나는 이성애자가 되고 싶다.	.05	-.03	.08	.10	.00	.14	.09	-.83
27. 나는 내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9	.04	-.04	-.10	-.05	.07	.01	-.54
고유치	5.50	4.14	2.47	2.08	1.71	1.58	1.36	1.08
공통분산(%)	18.52	13.97	7.84	6.21	5.26	3.59	3.89	2.51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86	.84	.86	.79	.84	.73	.57	.86

의 내적합치도가 .73~.86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문항별 요인부하량

하위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수용 걱정	→ LGBIS16	.80
	→ LGBIS9	.69
	→ LGBIS5	.59
은닉 동기	→ LGBIS1	.84
	→ LGBIS19	.45
정체성 불확신	→ LGBIS14	.70
	→ LGBIS8	.78
	→ LGBIS3	.80
	→ LGBIS22	.84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 LGBIS27	.57
	→ LGBIS20	.94
	→ LGBIS2	.95
고된 과정	→ LGBIS23	.69
	→ LGBIS17	.84
	→ LGBIS12	.89
정체성 우월	→ LGBIS7	.67
	→ LGBIS10	.82
정체성 긍정	→ LGBIS18	.74
	→ LGBIS6	.75
	→ LGBIS13	.78
정체성 중심	→ LGBIS26	.93
	→ LGBIS11	.45
	→ LGBIS15	.69
	→ LGBIS21	.53
	→ LGBIS24	.92
	→ LGBIS25	.94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8요인 모형(26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는 .908, TLI는 .891, SRMR은 .072, RMSEA는 .063(.055~.072)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설 1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8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45~.95로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기준으로 .15~.58로 나타났으며, ‘정체성 긍정’과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의 상관관계가 .58로, 유일하게 .30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요인 간의 공분산을 1로 제약한 제약 모델과 비제약 모델간의 카이스퀘어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234.50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 분석

한국판 LGBIS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 다집단 민족정체성 척도의 내집단 지향과 외집단 지향, 집단자존감 척도의 공적 집단자존감과 정체적 집단자존감, 드러내기 척도, 그리고 정체성 수용기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대로, 가설 2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척도는 한국판 LGBIS의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과 가장 큰 상관(정적)을 보였고, 내집단 지향은 정체성 긍정과 가장 큰 상관(정적)을 보이는 반면 외집단 지향은 정체성 우월과 가장 큰 상관(부적)을 보였다.

표 3. 수렴 타당도 분석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	내집단 지향	외집단 지향	공적 집단 자존감	정체적 집단 자존감	드러내기	정체성 수용 기간
수용 걱정	.32**	.15*	.11	-.29**	.29**	-.16*	-.10
은닉 동기	.28**	-.39**	-.15*	-.15*	-.11	-.31**	-.11
정체성 불확신	.33**	-.21**	.13	.03	-.06	-.03	-.43**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74**	-.42**	-.09	-.30**	.08	-.12	.06
고된 과정	.40**	-.03	.00	-.16*	.22**	-.07	-.22**
정체성 우울	-.06	.19**	-.28**	-.08	.15*	.07	.24**
정체성 긍정	-.56**	.69**	.10	.05	.09	.22**	.11
정체성 중심	-.06	.52	-.06	-.13	.65**	.06	.10

주. Shaded area는 가설로 설정된 상관관계임.

\* $p < .05$ , \*\* $p < .01$

공적 집단자존감은 수용 걱정 및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과 가장 큰 상관(부적)이 있으며, 정체적 집단자존감은 정체성 중심과 가장 큰 상관(정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드러내기는 은닉 동기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체성 긍정과는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체성 수용기간은 정체성 불확신과 가장 큰 상관(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한국판 LGBI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의 준거로 PANAS의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척도, 우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가설 3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용 걱정,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고된 과정은 부적정서 및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체성 긍정은 정적정서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은닉 동기, 정체성 우울과 정체성 중심은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성애자 집단과 양성애자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동성애자 집단(게이,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집단이 한국판 LGBIS의 하위요인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정체성 불확신과 고된 과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성애자 집단이 동성애자 집단에 비해 정체성 불확신과 고된 과정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우울
수용 걱정	.05	.26**	-.07	.19**
은닉 동기	-.11	-.00	.01	.01
정체성 불확신	-.16*	.03	-.10	.12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	-.20**	.14*	-.19**	.17*
고된 과정	-.01	.12*	-.10	.14*
정체성 우월	.00	.06	-.08	-.04
정체성 긍정	.20**	-.03	.15*	-.11
정체성 중심	.06	.06	.02	.00

주. Shaded area는 가설로 설정된 상관관계임.

\* $p < .05$ , \*\* $p < .01$

표 5. 동성애자 집단과 양성애자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동성애자 집단( $n=123$ )	양성애자 집단( $n=80$ )	$t$
	$M(SD)$	$M(SD)$	
수용 걱정	3.62(1.28)	3.75(1.34)	-.70
은닉 동기	4.25(1.27)	4.05(1.28)	1.07
정체성 불확신	1.85(1.08)	2.59(1.13)	-4.67***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	2.14(1.38)	1.81(.90)	1.91
고된 과정	2.57(1.37)	3.07(1.44)	-2.47**
정체성 우월	2.02(1.07)	1.83(1.12)	1.25
정체성 긍정	3.64(1.44)	3.58(1.20)	.29
정체성 중심	3.98(1.25)	3.71(1.25)	1.50

\*\* $p < .01$ , \*\*\* $p < .001$

## 논 의

한국에는 LGB의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문적·임상적으로 유용한 척도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 LGB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GBIS를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판 LGBIS의 요인구조,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판



LGBI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스크리 도표와 평행분석을 고려한 결과, 8요인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절대값 .40이하, 둘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30이상, 그리고 요인부하량 차이가 .10미만인 문항인 4번 문항(“나는 누가 나의 동성연애관계를 알고 있는지 신중하게 알린다”)을 제거하여, 26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8요인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가설 1과 같이, 8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한국판 LGBIS의 8개 하위요인은 원칙도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은닉 동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은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한국판 LGBIS에서 ‘은닉 동기’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하위요인에 포함된 1번 문항(“나는 나의 동성연애관계를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고 싶다”)의 경우, 먼저 응답자에 따라 ‘개인적인(private)’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부 LGB는 ‘개인적인’의 범위를 자기 자신으로 국한하는 반면에 다른 LGB는 가족이나 지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원칙도가 개발된 미국에 비해, LGB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심한 국내에서, 더 신중하고 선택적으로 커밍아웃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Kim, Kim, & Lee, 2021), ‘개인적인’의 범위를 더 좁게 정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포르투갈인을 대상으로 LGBIS를 타당화 한 Oliveira, Lopes, Costa, Nogueira(2012)의 연구에서도

LGBIS가 7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은닉 동기’의 세 문항이 한 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이는 대신 각각 ‘정체성 불만족’과 ‘낙인 예민성’이라는 하위요인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은닉 동기’의 신뢰도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은닉 동기’를 구성하는 세 개의 문항 중 두 문항이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인 반면에 나머지 한 문항은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응답자에 따라 ‘동성연애’와 ‘성적지향’ 중 특히 더 숨기고 싶은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닉 동기’의 신뢰도가 낮게 나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시로, 양성애자들의 경우,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게이나 레즈비언 커뮤니티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정체성과 달리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와 ‘성적지향’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Balsam & Mohr, 2007; Feinstein, Dyar, Bhatia, Latack, & Davila, 2014).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수가 적을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Abdelmoula & Arkout, 2015), 탐색적 요인 과정에서 ‘은닉 동기’를 구성하는 한 개의 문항이 삭제되면서 두 개의 문항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설 2와 같이, 한국판 LGBIS의 하위 척도와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는 한국판 LGBIS의 하위 척도 중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집단 지향은 정체성 긍정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외집단 지향은 정체성 우월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자존감 중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미하는 공적 집단자존감은 타인의 수용을 걱정하는 수용 걱정과 LGB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체적 집단자존감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정체성 중심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드러내기는 은닉 동기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정체성 긍정과는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체성 수용 기간은 정체성 불확신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LGBIS의 8개 하위 척도들이 LGB의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설 3과 일치하게, 한국판 LGBIS의 하위 척도와 심리적 적응 관련 척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준거 관련 타당도도 검증되었다. 먼저, 한국판 LGBIS에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반영하는 수용 걱정, 내면화된 동성에 부정, 고된 과정은 부적정서 및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GB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한 핵심 이유가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 혐오와 차별이라는 선행연구(Kim et al., 2021)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특히, 내재화된 성적 낙인 혹은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가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Szymanski, Kashubeck-West, & Meyer, 2008)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반해, 정체성 긍정은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정체성 긍정과 드러내기 간의 정적 상관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한국판 LGBIS의 8개 하위 척도 중 정체성 긍정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한국판 LGBIS의 하위 척도 중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고 알려진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이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우울과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이 성적정체성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모두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ramer 등, 2016). 예를 들어, 정체성 우월은 LGB로서 깊은 수준의 정체성을 형성했음을 반영하는 반면에 이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혹은 이성애자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개념일 수 있다(McCam & Fassinger, 1996). 또한 정체성 중심의 경우, LGB로서 느끼는 자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LGB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LGB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여기동, 이미형(2006)의 연구에 따르면, 서양 문화권보다 LGB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LGB는 더 강한 자아 부정과 저항을 경험하기 때문에, Cass 모델의 마지막 단계인 성적정체성 통합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대인관계나 환경적 맥락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경험되거나 표현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양성애자가 동성애자보다 정체성 불확신과 고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보다 더 심각하다는 선행 연구(Balsam & Mohr, 2007)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관련 연구에 따르면, 양성애자들은 이성애자나 게이들에 비해 성숙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욕심이 많고,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는다(Hayfield, Clarke, & Halliwell, 2014). 또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사이에서 좋은 면만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자이거나, 동성애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인식도 있다(Mohr, Chopp, & Wong, 2013). 이러한 양성애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양성애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Hayfield et al., 2014). 다만, 본 연구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다른 하위 척도(수용 걱정, 은닉 동기,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 정체성 우월, 정체성 긍정, 정체성 중심)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경험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으로, 한국판 LGBIS가 LGB 모두에게 실시할 수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Mohr 등, 201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판 LGBIS는 8개 하위요인, 2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타당도 분석을 통해 LGB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하고 타당화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LGB의 정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 LGB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국내 LGB 연구들은 내면화된 성적 낙인이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혹은 성적지향 은닉이나 드러내기 중 한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LGB 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LGB의 긍정적 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Lesbian, Gay,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로 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과 Balsam(2014)가 개발하고, 장지윤과 안현의(2018)가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긍정적인 성적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성적정체성의 긍정적인 요소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판 LGBIS와 달리 부정적인 측면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체성 관련 변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LGB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Ashmore et al., 2004), LGB의 성적정체성과 정신건강,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LGB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K-LGBIS를 통해 국내 LGB 정체성 및 각 하위요인과 관련한 양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동성애자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양성애자 집단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지향을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라는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Mohr & Kendra, 2011). 때문에 양성애를 하나의 독립적인 성적지향으로 보기보다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성향 또는 동성애자로서 받게 될 비난과 차별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왔다(박은실, 2010; 장지윤, 안현의, 2018). 이러한 인식 탓인지, 성적체성 연구에 있어 양성애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도 상이한 경험을 한다는 점이 밝혀진 바,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양성애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양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판 LGBIS는 연구뿐만 아니라 상담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척도는 상담에서 LGB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상담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정체성 불확신’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면, 내담자의 ‘수용 걱정’이나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어떤 이유로 성적체성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어려움을 내적으로 귀인하기보다는 외적으로 귀인하도록 격려하여 내담자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긍정적인 동성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Riggle, Rostosky, Black, & Rosenkrantz, 2017), 커밍아웃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차별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강병철, 하경희, 2012)을 고려할 때, ‘수용 걱정’이나 ‘정체성 불확신’ 등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무조건 커밍아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커밍아웃의 부정적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내담자의 ‘정체성 우월’ 혹은 ‘정체성 중심’ 점수가 높다면, 각각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정

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정체성 우월’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이성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정체성 중심’이 높은 경우, 자신의 성적체성과 다른 영역을 토대로 한 정체성을 통합하여 좀 더 다차원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LGB를 대상으로 ‘내면화된 동성애 부정’을 완화시키고 ‘정체성 긍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 및 제도적 접근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LGB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을 알아차리고 수정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도나 인격 형성 시기인 10대를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대학이나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확산을 막는 공중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마련하고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안이수, 2018; 정애경 등, 2020).

한국판 LGBIS를 상담 현장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먼저, 내담자의 높은 ‘수용 걱정’이나 ‘정체성 불확신’을 무조건 비합리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이러한 특성이 높은 이유를 수용 및 공감하고,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반영하는 한 예로,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2019)의 연구에 참여한 동성애 참여자

들은 상담 과정에서도 커밍아웃을 하기 전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담자가 LGB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거나 상담자가 충분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자는 모든 내담자와의 상담 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라고 호칭하는 이성애중심주의적 언어표현을 쓰지 않고, 상담기관이나 상담실 내부에 무지개 깃발을 두거나, 상담자의 홈페이지에 성소수자 협력자임을 드러내는 배너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박정은 등, 2019). 둘째, 한국판 LGBIS는 한국의 일부 LGB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하위 척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절단(cut-off) 점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상담자나 연구자는 K-LGBIS의 점수를 평가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K-LGBIS의 ‘은닉 동기’라는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낮지만, 많은 LGB가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병철, 하경희, 2007; 박임효, 2008). 따라서, LGB 정체성을 탐색할 때, K-LGBIS와 더불어 은닉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척도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드러내기 척도(Outness Inventory; OI)는 Mohr와 Fassinger(2000)가 개발한 척도로 응답자가 얼마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커밍아웃했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이 여성과 20·30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의 대상이었던 표본 1은 레즈비언과 게이 비율이 37.3%와 25.9%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의 대상이었던 표본 2는 50.5%와 8.1%로 표본 집단의 편향이 확인되었고, 연령대 분포에 있어 20대와 3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나영정과 정현희(2015)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도 유사한 여성 편중, 연령 편중이 나타났으며, 성소수자의 모집단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유동적이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성별, 연령의 편중을 ‘편중’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한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성소수자 연구에 있어 모집단이나 표본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LGBIS의 8개 요인 중 ‘정체성 긍정’만이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정적정서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성정체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LGB-PIM을 함께 사용하여 성정체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이 정적정서, 부적정서, 삶의 만족도 및 우울 중 어떤 요인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 우월’과 ‘정체성 중심’이 어떤 관계나 맥락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GBI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에 소개했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LGBIS는 긍정적 측면을 포함한 성적체성의 다차원적 차원을 측정하고, 양성애자를 포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판 LGBIS가 꾸준히 검증되고 보완된다면, LGB의 정체성 및 심리적 건강을 살펴보는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LGB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해외와 달리 국내 LGB들에게 중요한 정체성 관련 주제가 발견되고 이를 토대로 한 척도가 개발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병철, 하경희 (2007).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5, 167-189.
- 김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 김은하, 정보현, 김하영 (2020). 레즈비언 대학(원)생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상담학연구*, 21(2), 241-267.
-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605-634.
- 김혜민, 유금란 (2020). 개념도를 활용한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 성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17-438.
- 김혜숙 (1993). 한국 집단 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9-301.
- 나영정, 김지혜, 류민희, 이승현, 장서연, 정현희, 조혜인, 한가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친구사이.
- 나영정, 정현희 (2015).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이론*(32), 92-108.
- 박도담, 유성경 (2019). 한국판 성적 지향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 Scale: K-SOM)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99-927.
- 박수영, 공춘옥, 정윤경 (2018).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내담자의 상담 참여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367-383.
- 박은실 (2010). 양성애 여성의 횡단적 주체성 형성과 도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의주 (2012). 남성 동성애자의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와 심리적 안녕감, 드러내기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임효 (2008). 동성애자의 성적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교육학적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남궁미, 정서진 (2019). 동성애자 내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여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997-1021.
- 박준호, Lawrence Gerstein, Deborah Miller (2014). 대학생 동성애 상담: 상담자 훈련을 위한 체계적 모델의 활용. *인간이해*, 35(1), 53-

- 71.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안이수 (2018).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 527-539.
-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 정체성 발달 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 우사라, 유성경 (2017). 상담자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동성애자 상담 유능감에 따른 임상적 판단 및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11-334.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이솔희 (2019). 한국판 LGB 미묘한 차별 경험 척도(K-LGB-MA)의 개발 및 타당화.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경 (2014). 남녀 동성애자의 내면화된 성적 낙인 척도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장지윤, 안현의 (2018).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긍정적 정체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73-295.
- 전검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정애경, 윤은희 (2020).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83-60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bdelmoula, M. & Akrouf, F. (2015). The effect of sample size and the number of items on reliability coefficients: Alpha and rho: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mer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19(1), 1-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4, February 26). COPP Position statement on therapies focused on attempts to change sexual orientation (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ies). Retrieved from <https://pubmed.ncbi.nlm.nih.gov/1118319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pi/lgbt/resources/guidelines>.
- Ashmore, R. D., Deaux, K., & McLaughlin-Volpe, T. (2004).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30(1), 80-114.
- Baams, L., Grossman, A. H., & Russell, S. T. (2015). Minority stress and mechanisms of risk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 Developmental Psychology*, 51(5), 688-696.
- Balsam, K. F., & Mohr, J. J. (2007). Adaptation to sexual orientation stigma: A comparison of bisexual and lesbian/gay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306-319.
- Brady, S., & Busse, W. J. (1994). The Gay Identity Questionnaire: A brief measure of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26, 1-22.
- Cass, V. (1979).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1), 219-235.
- Cass, V. (1984).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Test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ex Research*, 20, 143-167.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stello, A.,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Cramer, R. J., Burks, A. C., Golom, F. D., Stroud, C. H., & Graham, J. L. (2016).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Factor analytic evidence and associations with health and well-being.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50(1-2), 71-88.
- D'Augelli, A. R., & Grossman, A. H. (2001). Disclosure of sexual orientation, victimiz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older adul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0), 1008-1027.
- de Oliveira, J. M., Lopes, D., Costa, C. G., & Nogueira, C. (2012).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LGBIS): Construct validation, sensitivity analyses and other psychometric propertie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5(1), 334-347.
- Diamond, L. M. (2007). A dynamical systems approach to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female same-sex sexu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2), 142-16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Feinstein, B. A., Dyar, C., Bhatia, V., Latack, J. A., & Davila, J. (2014). Willingness to engage in romantic and sexual activities with bisexual partners: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3), 255-262.
- Feinstein, B. A., Goldfried, M. R., & Davila,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5), 917-927.
- Goodrich, M. M., & Brammer, M. K. (2021). Cass's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9(4), 239-253.
- Hayfield, N., Clarke, V., & Halliwell, E. (2014). Bisexual women's understandings of social marginalisation: 'The heterosexuals don't understand us but nor do the lesbians'.



- Feminism & Psychology*, 24(3), 352-372.
- Herek, G. M., Gillis, J. R., & Cogan, J. C. (2009). Internalized stigma among sexual minority adults: Insights from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32-43.
- Hogarty, K., Hines, C., Kromrey, J., Ferron, J., & Mumford, K. (2005). The quality of factor solut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influence of sample size, communality, and overdetermin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5(2), 202-226.
- Jackson, S. D., & Mohr, J. J. (2016). Conceptualizing the closet: Differentiating stigma concealment and nondisclosure processe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3(1), 80-92.
- Kim, E. H., Kim, H., & Lee, K. (2021).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experiences. *Psychology & Sexuality*, Published online first.
- King, M., Semlyen, J., Tai, S. S., Killaspy, H., Osborn, D., Popelyuk, D., & Nazareth, I. (2008). A system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harm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 70.
- Lingiardi, V., Baiocco, R., & Nardelli, N. (2012). Measure of internalized sexual stigma for lesbians and gay men: a new scale. *Journal of Homosexuality*, 59(8), 1191-1210.
- Luhtanen, R. K.,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02-318.
- Martin, J., & Dean, L. (1987). *Ego-dystonic homosexuality scale*. Colombia University. Unpublished manuscript.
- Mayfield, W.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lized homonegativity inventory for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41(2), 53-76.
- McCarn, S. R., & Fassinger, R. (1996). Revisiting sexual minority identity formation: A new model of lesbian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y*, 24(3), 508-534.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eyer, I. H. (2010). Identity, stress, and resilience in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 of col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3), 442-454.
- Mohr, J. J., Chopp, R. M., & Wong, S. J. (2013). Psychotherapists' stereotypes of heterosexual, gay, and bisexual men.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25(1), 37-55.
- Mohr, J. J., & Fassinger, R. (2000). Measuring dimensions of lesbian and gay male exper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2), 66-90.
- Mohr, J. J., Kendra, M. S. (2011). Revision and extens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minority identity: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2), 234-245.
- Moleiro, C., & Pinto, N (2015).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Review of concepts, controversies, and their relation to psychopathology classification systems. *Frontiers*

- in *Psychology*, 6, 1511.
- Newcomb, M. E., & Mustanski, B. (2010). Internalized homophobia and internalized mental health problem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8), 1019-1029.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ECD (2019). A spotlight on LGB people. Society at a Glance 2019.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korea/sag2019-korea-en.pdf>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Riggle, E. D. B., Mohr, J. J., Rostosky, S. S., Fingerhut, A. W., & Balsam, K. F. (2014). A multifactor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LGB-PIM).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4), 398-411
- Riggle, E. D. B., Rostosky, S. S., Black, W. W., & Rosenkrantz, D. E. (2017). Outness, concealment, and authenticity: Associations with LGB individuals'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1), 51-62.
- Riggle, E. D. B., Whitman, J. S., Olson, A., Rostosky, S. S., & Strong, S. (2008). The positive aspects of being a lesbian or gay ma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2), 210-217.
- Szymanski, D. M., Kashubeck-West, S., & Meyer, J. (2008). Internalized heterosexism: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over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4), 510-524.
- Wast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2010). WV6\_Results\_South Korea 2010\_v20180912. Retrieved from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 Yi, H., Lee, H., Park, J., Choi, B., & Kim, S. S.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Epidemiology and Health*, 39, e2017046.

논문 투고일 : 2022. 03. 02

1차 심사일 : 2022. 03. 10

게재 확정일 : 2022. 03. 28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

**Sojeong Lee**

**Eunha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y Scale(LGBIS), which is a scale measuring the multidimensional identities of sexual minorities. For this, we conduc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a sample of 201 LGBs(homosexuals and bisexuals). Identical to the original scale, eight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translated scale(i.e., concealment motivation, identity uncertainty, internalized homonegativity, difficult process, acceptance concerns, identity superiority, identity centrality, and identity affirmation), but one item was removed. In addition, the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 eight factors except for concealment Motivation were satisfactor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8-factor model had a good fit to the data. Finally, to verify the criterion validity, correlation among each eight factor and the scales measuring the identity related scale and the psychological-functioning scale were analyzed. In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LGBIS consists of 8 factors and 26 items in total. Also it was found to be a valid measure for LGBS in Korea as well.

*Key words : Multidimensional identity, homosexual, bisexual, scale validatio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부 록

한국판 동성애자/양성애자 다차원 정체성 척도(K-LGBIS)

다음 문항들을 보고 동성애자/양성애자로서 여러분의 현재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반응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면서 응답해주시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떠오른 반응에 따라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점 : '매우 동의한다.'

문 항 내 용							
1	나는 나의 동성연애관계를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고 싶다.	1	2	3	4	5	6
2	가능하다면, 나는 이성애자가 되고 싶다.	1	2	3	4	5	6
3	나는 나의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1	2	3	4	5	6
4	나는 종종 사람들이 나의 성적지향을 바탕으로 나를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1	2	3	4	5	6
5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라서 기쁘다.	1	2	3	4	5	6
6	나는 이성애자들을 알잡아본다.	1	2	3	4	5	6
7	내 성적지향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이 바뀐다.	1	2	3	4	5	6
8	나는 사람들이 내 성적지향을 잣대로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6
9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0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어서 나의 성적지향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1	2	3	4	5	6
11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괴로웠다.	1	2	3	4	5	6
12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6
13	나는 내가 양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14	내 정체성에서 나의 성적지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	2	3	4	5	6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있어 나의 성적지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1	2	3	4	5	6
16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2	3	4	5	6
17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양성애자보다 지루한 삶을 산다.	1	2	3	4	5	6
18	나의 성적지향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다.	1	2	3	4	5	6
19	내가 이성애자였으면 좋겠다.	1	2	3	4	5	6
2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사람들은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1	2	3	4	5	6
21	나는 나의 성적지향을 정의하려고 할 때 매우 혼란스럽다.	1	2	3	4	5	6
22	나는 처음부터 나의 성적정체성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1	2	3	4	5	6
23	내가 동성애자/양성애자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	2	3	4	5	6
24	동성애자/양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5	나는 동성애자/양성애자인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6
26	나는 내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요인	문항	문항 수
수용 걱정	4, 8, 15	3
은닉 동기	1, 18	2
정체성 불확신	3, 7, 13, 21	4
내면화 된 동성애 부정	2, 19, 26	3
고된 과정	11, 16, 22R	3
정체성 우월	6, 9, 17	3
정체성 긍정	5, 12, 25	3
정체성 중심	10R, 14, 20, 23, 24	5

R: 역문항